

---

# 2021년 제3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1. 15. ~ 1. 2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KTV 대한뉴스		
방송일자	2020. 1. 15.	시청률	0.007

### 【총 평】

KTV 대한뉴스는 많은 시도와 변화를 주면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졌고,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앵커가 보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청자는 그 보도에 더욱 집중할 수도 있고 흘려들을 수 있는데, 신경은 앵커의 몰입도가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다.

주요뉴스는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조정안,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종교시설 방역지침 강화 등이 소개되었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주택 정책,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말정산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다루었다.

### 【구성 및 내용】

- ‘신규확진 513명…내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잘 정리되었고 인구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명절 전까지 감소세를 유지 등 재확산에 관한 경각심을 충분히 일러주었다.
- ‘문 대통령 “질병청장, 전권 갖고 백신접종 지휘”’  
2월부터 접종하는 코로나 백신 소식을 질병청장으로부터 보고 받는 문대통령의 당부 내용이 전해졌다. 이미 유럽 및 미국 등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있어 어떻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지 초미의 관심사로 다가왔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알아둬야 할 것은?  
연말정산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꼭 알아둬야 할 점 위주로 설명했고, 의료비 부분에서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함을 전해 집중력을 높였다.
-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범위에 대해 농·축·수산물 선물 액수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경제위기속에 불가피한 범정부적 민생대책으로 지역경제와 서민경제가 잘 활성화되어 순환되는 절실함이 전해졌다.
- 지난해 디지털 뉴딜 1조 6천억 투자·5만 명 참여  
디지털 뉴딜 성과 관련 예산과 일자리 등 현실적인 성과들이 다루어져 눈길을 끌었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취준생과 경력단절 여성과 실직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내용 이었고, 향후 사업의 확대 분야도 비중 있게 소개되어 기대감을 높였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강화…‘폐쇄 명령 절차 마련’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지침과 방송제작 현장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집단감염의 약 15%가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의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1. 15.	시청률	0.009

### 【총 평】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소수자인 시각장애인, 재소자,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등 ‘소수자’를 배려하는 보도기획이 돋보였다. 색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국민리포트다운 리포트가 많았던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이고 ‘다문화 리포트’와 ‘보라미 라디오’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배려와 소통이라는 좋은 메시지를 이끌어냈다.

코로나 19 장기화 국면을 소재로 한 원격 근무 ‘달방’ 인기 등 우리 사회에서 빚어지는 새로운 모습을 소개한 기획이 뛰어났다. 또, 4배 빠른 무료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의 이점과 이용 방법까지 소개해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 밖에 지하철역 점자 시(詩), 재소자용 라디오 방송, 고향 가족에게 안부 사연을 전하는 ‘다문화 리포트’ 구성이 소수자 수용자를 배려했다. 강추위에 나무 옷 입혀주기, 손흥민 선수를 그린 영국할머니 화가의 전시회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감동의 메시지였다.

### 【구성 및 내용】

주말 분위기에 잘 맞는 아이템부터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까지 골고루 잘 담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벗어나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새해소망을 들어본 ‘다문화리포트’는 국민리포트다운 특징이 잘 드러난 취재물이었다.

한적한 관광지 호텔이나 민박업소에 자리 잡고 업무를 보는 현상을 취재한 “‘달방’에서 일해요”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원격근무가 가져온 큰 변화라는 점에서 눈길이 가는 아이템이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하철역 난간에 새긴 ‘점자 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의 움직임이 점점 확산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취재물이었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역의 경우 난간손잡이에 ‘점자 시’가 새겨졌고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지하철역 점자 시는 경인교대역이 처음인데 시각장애인이 잡고 오르내리는 계단난간과 엘리베이터 손잡이 등 7곳이다.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세상이 시끄러운 상황에서 재소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보라미 라디오’를 소개한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법무부가 재소자를 위해 운영하는 교화방송으로서 보라미 라디오는 청취율 100%를 자랑한다. 보라미 라디오는 재소자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로 다양한 사연이 전해지며 특히 가족들이 보내주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올라온다.

적십자사 인천지사 사람들의 ‘나무 옷 입혀주기’ 행사는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나무들이 추위를 이겨내고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에 옷을 입혀주는 봉사를 인천 연수구에서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500그루에 이른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1. 15.	시청률	0.050

### 【총 평】

주요 경제이슈는 ‘연말정산 서비스’ 15일 개통, 환급액 높이는 세테크 전략, 알뜰신잡은 강직성 척추염 예방·관리법’으로 구성해 방송했다. 13개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세테크 법과 달라지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소개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위축된 소비로 침체 된 경기를 살리기 위하여 신용카드 공제율을 특정기간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안경구입비 시력 교정용만 해당되며, 월세 및 실손의료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등은 공제 항목에 해당됨을 알려주었다. 이번 연말 정산의 서비스 이용시간이 종전보다 2시간 늘어났으며, 민간 공인인증서 사용, 25일까지는 1회 접속으로 30분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소개됐다.

### 【구성 및 내용】

전체적인 구성은 코로나19 현황을 정리하고 백신 접종 수치를 전했으며 시설별 감염 주의사항까지 함께 살펴봤다. 경제이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서비스 이용법, 민간 인증서 도입, 달라지는 점, 확대된 주요 항목 등을 정리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중도퇴직자, 주택임차 차입금 상환액에 관련된 연말정산을 따로 정리했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도 따로 살펴봤다. ‘알뜰신잡’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예방 및 관리법에 대해 소개했다.

경제문제와 코로나19 전망이 떴어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정보를 위주로 먼저 짚고 시작한 점이 좋았다. 특히 오늘은 우리나라의 3차 유행에 관해 정리하면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에서는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이용법,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이 유익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에 관한 정보를 전달했다. 무주택자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와 월세를 살고 있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는 부분을 소개해 주었다. 이직과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퇴직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었다. 이 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정리와 사례별, 상황별로 나누어 제출 증빙서류까지 자세하게 언급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에 대해 언급했는데, 과다공제시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도 강조를 해서 좀 더 경각심을 준 것도 좋았다.

‘알뜰신잡’에서는 그 동안 잘 소개되지 않았던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 소개가 되어 눈길을 끌었다. 먼저 환자 수 추이부터 살피고 발생 원인과 주요증상, 예방 관리법에 관해 차례로 언급이 되었는데, 체크리스트처럼 개인의 증상을 대입해서 생각해볼 만한 내용이 준비되어 유익했다.

프로그램	KTV 아트시네마		
방송일자	2020. 1. 16.	시청률	0.028

### 【총 평】

KTV 아트시네마는 다양한 독립영화를 맛보기 함으로써 젊은 영화인들의 작품 세계와 아마추어적인 독특함을 보여주었다. 영화 '병훈의 하루'는 오염강박과 공황장애를 가진 병훈의 일상이 얼마나 힘겹고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의 강도를 실감나게 잘 표현해주어 강박과 공황장애 환자들의 남모르는 고통을 같이 느껴보게 하는 영화였다.

특히, 상업 영화의 화려함과 대규모 스케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소재를 찾고 제작에 나선 독립영화의 메시지가 교훈적이고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병훈의 하루', '신의 딸은 춤을 춘다', '강낭콩 한 살이', '우유 드링크 러브' 등에서 보여주는 소재와 영화 내용이 흥미로움과 몰입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다양성 영화'는 배우 이희준이 2018년 연출한 '병훈의 하루'로 오염강박과 공황장애를 가진 병훈이 남들이 평범하게 느끼는 일상을 힘겹게 겪으며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배우 이희준이 섬세하게 캐릭터를 소화해내며, 병훈이라는 주인공의 관점에서 영화를 전개해 강박과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영화로서 가치를 발휘해주었다.

'씨네마 톡(Talk)'에서는 김용승 영화감독의 2018년 작품 '우유 드링크 러브'를 다뤘는데, 초등학교의 말랑말랑한 사랑이야기와 제작과정이 이야기에 잘 묻어났다. 초등학교들의 세계와 문화에서 빚어지는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잘 표현해주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유 급식 주변으로 같은 짝이 되길 원하는 그들만이 느끼는 이성애에 대한 풋풋한 로맨스와 설레는 묘사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이들 세계의 잔잔한 재미와 유년시절로 돌아가 동심의 세계에 폭 빠져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만든 아름답고 맑고 깨끗한 영화였다.

'신의 딸은 춤을 춘다'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너무 무겁지 않게 잘 다루었다.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살아가는 신미가 병무청의 병역검사 판정 검사에서 빚어지는 상황을 통해 군입대를 회피하고자 꿈을 부리는 남성으로 오해받으며 여성으로 당당히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미의 모습을 그려 감동을 주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갖는 아픔과 상처를 잘 묘사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

'강낭콩 한 살이'는 아이를 두고 떠나는 비정한 엄마와 병든 노인과 함께 살아가는 어린 아이가 어느날 할머니의 임종을 맞으며 강낭콩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았다. 강낭콩을 포기하지 않고 땅에 심으며 끝까지 가꿔나가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린 영화로 재혼 가정뿐만 아니라 노인 고독사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어 방송 종료 후에도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좋은 영화였다.

프로그램	길 따라 인문학		
방송일자	2020. 1. 16.	시청률	0.035

### 【총 평】

‘시심을 흔드는 단양팔경’은 단양팔경을 중심으로 퇴계의 시와 단원, 겸재의 그림 등 작품의 배경과 스토리를 인문학적으로 조명했다. 단양팔경의 8곳 명승지를 소개하며 자연의 멋과 태고의 신비를 끌어들이는 구성이 시각적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장희나루를 무대로 당시 단양군수 퇴계와 관기 두향의 러브 스토리를 뮤지컬 ‘매향’을 인서트로 보여준 드라마틱한 구성이 흡인력을 제고했고, 사인암을 그린 단원 김홍도, 도담삼봉을 그린 겸재의 작품세계를 조명한 부분도 색다른 관심을 이끌었다.

도담삼봉 전경, 사인암과 선암계곡의 기암절벽, 세월의 깊이와 두께를 가늠하게 하는 고수동굴鍾유석 등의 영상 구성이 완성도를 높였다. 또, 구인사, 고수동굴, 온돌관광문화재, 단양구경시장, 방곡도예촌 등 단양의 볼거리가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시심을 흔드는 단양팔경은 단양군의 명승지 팔경을 소개했다.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사인암, 구담봉, 옥순봉, 도담삼봉, 석문 등을 풍경을 담아냈다. 특히 퇴계 이황의 시 ‘도담삼봉’을 소개해 퇴계 이황의 시선으로 단양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지역에 관한 비극적인 역사는 지역민들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자연풍광을 중심으로 ‘길 따라’ 부분과 단양을 소재로 한 시인과 화가의 인물을 조명하는 ‘인문학’분야로 구성한 점이 돋보였다. 이 밖에 주변의 구인사, 고수동굴, 온돌관광문화재, 단양구경시장, 방곡도예촌 등 단양의 볼거리를 보여준 점도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구인사는 특유의 멋스러운 자태로 시선을 압도했으며 단양구경시장은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청화백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생산품으로 그 우수성을 알렸고, 고수 동굴은 퇴고의 신비를 간직한 곳이어서 다채로운 볼거리가 됐다.

도담삼봉은 섬처럼 물위에 떠있는 모습이 신비한 절경을 보여주었고, 도담삼봉에 얹힌 설화 중 하나는 삼봉 정도전 선생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 하나는 장군봉과 아내봉 설화이다. 정도전은 자신의 호인 삼봉을 도담삼봉에서 따왔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겸재 정선은 삼도담도라는 작품에서 도담삼봉을 화폭에 담았으며 퇴계이황도 도담삼봉에 대한 시를 남겼다. 사인암의 수직절리에는 많은 시인문객들이 다녀가며 시를 남겼고 수평절리에서는 바둑 등을 즐기기도 했다. 김홍도는 사인암도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선암계곡은 퇴계이황 선생이 신선이 놀다간 곳이라고 극찬했는데, 삼선구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삼선은 선암계곡 상류에 있는 세 바위를 일컫는다.

옥순봉은 희고 푸른 바위들이 힘차게 솟아 있어서 옥순봉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에도 퇴계이황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다. 구인사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법당인 대조사전이 소재하고 있으며, 법당을 비롯한 30여개의 거대한 건물이 있는 이곳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1. 16.	시청률	0.113

### 【총 평】

‘나우북’은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8차 대회’의 의미와 북한의 대남 메시지 핵심 세 가지를 정리하였다. 한미연합훈련을 거부하는 북한의 속내와 3년 전 평화의 봄날을 희망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실태를 자세히 분석해줌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현실을 읽을 수 있게 했다. ‘단박톡’은 북한의 집 이야기 ‘북한의 신년 재건축 열풍’을 다뤘다. 사회주의체계에서도 주택 열풍이 부는 북한 소식을 다뤄 흥미로웠고, 독창적이었고 참신한 기획이었다. 특히 북한 살림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자본주의 체계와 다를 바 없어 재미있는 정보였다.

### 【구성 및 내용】

‘나우북’은 지난 1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8일간 열린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보여준 북한의 대남 메시지 핵심을 정리하고 북한 요구의 속뜻, 18년 남북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요구의 부당함과 향후 남북대화의 가능성 등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전망했다. 북한이 언급한 대남 메시지 핵심은 첫째, 첨단 군사 장비 반입 및 한미연합훈련은 남북 합의 역행임으로 중지하라는 것, 둘째,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남한 상대하겠다는 것, 셋째, 남북이 노력하면 3년 전처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새 출발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이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훈련이 남북화합에 가장 해가 된다면, 북한이 매해 한미연합훈련을 중지시키기 위해 무력도발을 하는 근본적 이유를 자세하게 전달했다. 최첨단 전투능력과 실질적인 군사장비가 동원되어 북한체제를 전복시킬 위험이 높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에서 돈을 써야하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이유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의 일방 노력만으로 평화를 이뤄내기는 어려우므로 북한의 노력도 필요함을 전달했다.

‘단박톡’은 북한의 부동산 재건축 열풍에 대해 살피고 남한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위주로 비교해 보았다. 북한의 주택은 오래된 노후주택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최근 노후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활발한데 북한에서 주택의 거래가 언제부터 가능했는지, 아파트 값을 결정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층수, 가격, 부동산 투기 여부 등을 알 수 있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북한에서도 아파트가 선호되고 입지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며 고층보다는 저층이 더 선호된다는 등 흥미로운 주제였다.

이 밖에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식량난 및 주거난 등의 해결을 위해 사회주의 체제를 수정해 나가며 시장경제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소개했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1. 17.	시청률	0.000

### 【총 평】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난은 물론 취업 한파가 매서운 가운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알려줘!”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시행 의미,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 법’의 내용과 구체적 활용 사례, 고용안전망 확충의 기대효과도 덧붙여 정부의 고용복지 강화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 밖에 1차 실업급여, 2차 국민취업제도, 3차 예술인 고용보험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개막을 알렸다.

### 【구성 및 내용】

새해 첫 날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도적 취지와 배경 등을 상세히 다뤄 정책 수용성을 제고했다. 지난해 5월 고용안전망 확대에 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실업급여를 제공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취약계층에게 정부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보다 적극적인 고용노동정책으로 볼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설명은 동네 이장,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사례를 통해 알아본 것은 ‘PD리포트 이슈 본(本)’다운 접근방식이었다. 고용노동부 현장 실무자를 통해 제도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귀에 쏙쏙 들어오는 효과가 있었다. 실제 60대 구직자와 재취업 희망자를 사례로 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소개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했다. 또, 경력단절여성이 겪었던 구직의 어려움을 소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하나인 직업 성격 진단 검사를 소개했으며, 방송작가와 같은 프리랜서 직업인들의 처지를 알리고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추진 정책 등을 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청년취업희망자들에게 필요한 K-Digital 훈련사업 그리고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고용복지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보면 ‘한국형실업부조제도’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소재의 시의성, 구직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유익한 정보제공 등으로 수용자 만족도를 높였고, 시행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안을 알아본 부분도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구성이었다. 구직활동 성실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대한 고용노동부 방침도 소개되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1. 17.	시청률	0.021

### 【총 평】

‘첩첩산중 비지미골, 나의 흙집 나의 천국’은 귀산 11년차 50대 주인공이 첩첩산중에서 가축을 기르며 자연을 벗삼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몰입감을 높였다. 홀로 산촌에 들어와 독학한 흙집 건축기법으로 직접 설계하고 지은 버섯모양의 ‘세상에 하나뿐인 벽화가 있는 흙집’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소확행 일상을 담았다. 특히, 홀로 살면서 대안학교 학생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집짓기에 동참시킨 사랑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다가왔고, 밤하늘을 수놓은 별, 알람역할을 하는 닭 울음소리 등 영상과 소리의 화합이 산촌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했다. 또, 원형 모양의 가옥 구조가 세밀하게 소개돼 흙집을 지으려는 사람들에게 만족도 높은 정보를 제공했다. ‘집은 휴식처이자 사랑이 깃든 행복한 집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부각해 기획의도를 살렸다.

### 【구성 및 내용】

경북 영양군의 벽지마을 비지미골의 수하계곡을 따라가다 보면 산중에 암자처럼 자리 잡은 집이 있는데 집주인이 3년간 손수 지은 ‘흙 부대 집’이다. 귀산 11년차 주인공의 익숙한 산골생활, 흙집의 탄생, 그리고 10년 이상 이어져오는 인연에 대한 내용이 전해졌다. 산골생활은 주인공의 어릴 때부터 꿈이어서 시골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인적이 드물고 깊은 산 속에서 집을 짓기 위해 이곳으로 들어왔다. 귀촌과 동시에 집터를 조성하고 흙을 채운 부대를 쌓은 흙부대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은 정성자씨 혼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참고하며 지었다. 그렇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둥글둥글한 집이 완성되었다. 흙집이다 보니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쏟아지면 매번 손길이 필요하다. 집 내부에는 집을 방문한 친구들이 그려 새겨 넣은 벽화들이 가득하다. 혼자지만 이들 벽화가 항상 함께하는 기분이다.

자연을 닮은 흙집이 주는 푸근함과 산골생활의 정취 그리고 대안학교 학생들과의 정서적 교류 등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 한 편의 시네포엠과도 같은 진한 느낌을 안겨줬다.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자연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주인공의 표정과 이야기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흙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산골생활의 면면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깊게 그려냈다.

집이 수명을 다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재료를 선택해 지었다는 주인공의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잘 느낄 수 있었다. 집을 지을 때 대안학교 학생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과 주인공과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고 산불감시원으로 골짜기를 순찰하면서 더불어 깨끗한 공기와 자연에 감탄하며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있다. 주인공은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면서도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산골생활에 매번 행복을 느끼고 있다.